

### 佛정부, 즉석제과점만 '블랑제리' 간판

#### 직접 빵을 굽는 고유 제과점 보호 위해



▲ 지난 95년 프랑스 제과협회 회원들이 냉동생지를 이용한 빵을 프랑스 전통빵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프랑스 정부는 올해부터 즉석빵 제과점에만 '블랑제리'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제조빵을 파는 상점은 이를 금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굽는 고유 제과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공장에서 공급받는 빵(바게트)을 판매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프랑스로 빵가게를 의미하는 '블랑제리'라는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한 것. 한편 프랑스 정부는 제빵공 자격 조건에도 정식 견습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프랑스에는 약 3만5,000명의 제빵공들이 전체 빵 수요의 75%를 공급하고 있으나 슈퍼마켓이나 대형 점포에 공급되는 냉동생지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북한 빵 생산규모 10% 증가 식량난 해소 위해 물량 늘려

지난해 9월까지 북한의 빵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베이커리 전문 잡지인 <유러피언 베이커>가 북한중앙통신 내용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들어 가중되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빵 생산량을 늘려 이를 주민들에게 배급하고 있다는 것.

현재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대형 제빵공장이 평양에 몰려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빵이 각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전역에 걸쳐 각 마을마다 소규모 빵 공장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이 잡지는 보도했다.

### 노르웨이, 일요일에도 빵 판매 움직임 베이커리업계 법안개정 요구 정부 압박

노르웨이의 한 슈퍼마켓 체인 선두업체가 현재 금지 조항인 일요일 영업금지에 맞서 일요일에도 영업을 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미(Vimi)라는 이 회사는 신선빵류 및 페이스트리류의 판매 감소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자사 200개 체인점에서 일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일요일 영업금지 조항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노르웨이 정부의 허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르웨이 인터내셔널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일요일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간이매장, 주유소 등에서 취급하는 빵류의 매출이 슈퍼마켓과 달리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 원도우베이커리 살리기 나섰다 EU 후원 경쟁력 높이기 프로젝트 진행

유럽의 소규모 자영 제과점을 후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이커리 11'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자금 후원 아래 치열하고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 소규모 자영 제과점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후원은 유럽연합 이외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 여러 나라의 각종 단체와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우선 소규모 자영 제과점이 스스로 자기 점포를 진단,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CD-ROM에 담아 보급하고 있다.

### NASA 기술로 파운드케이크 개발

최근 일본의 방재용품 개발회사인 지 쿠라푸드社가 미항공우주국(NASA)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 파운드케이크를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사는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습기가 오히려 완제품 빵을 부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 착안 밀가루를 반죽·발효시킬 때 미항공우주국의 첨단 자외선 기술을 도입해 부패균을 없애도록 했다.

이번에 제작된 파운드케이크는 보존기간이 길고 맛도 우수해 비상식량으로 적합하지만 장시간 자외선을 쬐으면 발효에 필요한 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간과 강도를 조절해 구운 두 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알루미늄 시트로 포장하여 완전무균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 버터콤파운드 소비자가격 12% 하락 유럽수출가격 급등에서 반전이 원인

지난해 버터콤파운드 국내 소비자 가격이 약 12% 하락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가격 하락 이유에 대해 “그 동안 유럽각국에서 수출진흥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유제품 가격이 무역시장 전면 개

방에 따라 지역이 통합되면서 이러한 보조금제도가 폐지, 유제품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이며 “이에 맞춰 호주, 뉴질랜드 등이 싼 가격으로 유제품을 세계시장에 공급, 시장선점을 가속화함에 따라 이를 만회키 위해 파생된 불가피한 현상”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개별국가에서 지원되

던 수출진흥보조금을 다자간 협력체체인 EU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도 이러한 급등에서의 반전을 더욱 부추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kg당 3,150원하던 버터콤파운드 가격이 2,800원으로 소폭 내리면서 이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냐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인사 이동

### 크라운베이커리, 조직개편 단행 6부문 18부 52과로 인사이동

크라운베이커리는 21세기를 대비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회사 운영 체제를 6부문 18부 52과로 개편하고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 6개부문

■ 영업 → 백정관 전무 ■ 영업관리 → 정석재 이사 ■ 파주공장 → 이원무 전무 ■ 기술연구소 → 홍기표 부장 ■ 관리 → 김옥중 이사 ■ 영남사업부 → 엄익중 상무

#### 18부

##### ■ 영업부문

가맹점 영업부 → 이천휘 차장, 직영 영업부 → 오진도 차장, 영업기획부 → 유낙현 부장, 분공장 영업부 → 박준상 부장

##### ■ 영업관리부문

영업관리 → 김근갑 부장, 물류부 → 문국홍 부장

##### ■ 파주공장

생산부 → 송기열 차장, 생산관리부 → 최상철 부장, 설비부 → 박종길 차장

##### ■ 관리부문 :

총무부 → 안건희 부장, 구매부 → 김광현 차장, 경리부 → 김선태 차장, 자금부 → 배용국 부장

##### ■ 영남사업부문

영남사업부 → 오종섭 차장, 중부 영업부 → 김재울 차장, 호남사업부 → 이희주 차장, 김해공장 - 한용규 차장

### (주)샤니

#### 승진

▲유철원 부장대행 → 부장(마케팅팀 담당부장) ▲안재범 차장 → 부장대행(중부생산부담당 부장대행) ▲최필동 차장 → 부장대행(중부영업2부담당 부장대행) ▲이영창 차장 → 부장대행(중부영업3부담당 부장대행) ▲정홍 차장 → 부장대행(중부생산지원부담당 부장대행) ▲이주현 차장 → 부장대행(부산영업1부담당 부장대행) ▲정명중 차장 → 부장대행(대구생산관리팀담당 겸 내용물팀 담당 부장대행) ▲이강섭 차장 → 부장대행(기획실담당 부장대행) ▲이천용 차장 → 부장대행(연구소담당 부장대행)

### (주) 삼립유지

#### 승진

▲진준기 차장 → 부장(경리팀장) ▲박영철 과장 → 차장(영업 2팀장) ▲이양원 과장 → 차장(영업T/S팀장) ▲이경탁 과장 → 차장(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창일 과장 → 차장(연구소 책임연구원) ▲임덕수 대리 → 과장(경리팀 과장) ▲이두용 대리 → 과장(영업관리팀 과장) ▲이민병 대리 → 과장(기획팀 과장) ▲이두형 대리 → 과장(기획팀 과장) ▲김병철 대리 → 과장(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봉현 대리 → 과장(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노원 대리 → 과장(영업 3팀장) ▲진건영 대리 → (영업 4팀장) ▲예완수 대리 → 과장(영업 5팀장) ▲송태영 대리 → 과장(남부영업팀 과장)

#### 겸직발령

▲이우관 차장(총무팀장 겸 영업관리팀장)

### (주) 서울하인즈

▲나신철 부장 → 실수요부서장 ▲정수현 부장 → 제과사업부서장 ▲손희섭 부장 → 지방사업부서장 ▲손용원 차장(특진) → 외식사업부서장